

혼자서 다 기억할 수 없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외근과 고객 미팅 사이의 말과 사진을 업무 기록으로 바꾸고, CRM에서 다시 확인하는 1인 사업자의 AI 비서

WHY IT STARTED

일은 끝났는데, 기억해야 할 다음 일이 계속 남았습니다.

고객을 만난 뒤 서류를 보내고, 영수증을 정리하고, 입금을 확인하고, 지원사업 마감을 챙기는 일을 혼자 다시 입력해야 했습니다. 폼과 메모는 외근 중 오래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남길 수 있는 것은 말과 사진이었습니다.

고객 미팅

서류·입출금

영수증·경비

지원사업

“말하면 기록되고, 다시 확인돼야 끝나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ONE REAL SCENE

영수증 사진 한 장을 보냈을 때

실제 사용 방식

AI가 값을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기존 기록을 살핀 뒤 저장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1

말·사진
입력

“이번 달 경비로 기록해 줘”

2

OCR·AI
판단날짜·상호·
금액·비용
구분

3

기존 상태
조회모호하거나
중복이면 질문

4

CRM에
기록정해 둔 업무
필드로 구조
화

5

재조회
검
증기대값과 실
제 저장값 대
조

좋은 사례만 고르지 않고, 완료 보고 11건을 전부 다시 읽었습니다.

11건

CRM 쓰기 완료 보고 전수

각 기대 결과와 실제 CRM 재조회 결과를 대조

9건

기대 상태와 일치

생성·수정 후 현재 CRM 상태로 확인

1건

원문 대조 후 정정

영수증 사진과 다시 비교해 값 수정

1건

중복 가능성 확인 대기

같은 날짜·상호의 이전 비용 후보 발견

감사 범위

CRM 생성·수정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업무 전수. 단순 조회·아이디어 대화·사람이 직접 수정한 기록은 제외했습니다.

HOW IT WAS CHECKED

분모와 판정 규칙을 먼저 고정했습니다

1. 포함

AI가 CRM 생성·수정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11건

2. 대조

기대 결과와 CRM에서 다시 읽은 현재 상태 비교

3. 분류

일치·정정·확인 대기를 숨기지 않고 분리

HUMAN & SAFETY GATES

모르면 묻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멈춥니다

연결 모호 → 질문

상대 기록을 찾지 못한 지시는 임의 등록하지 않고 확인에서 멈춤

외부 발송 → 사람 승인

전자서명은 최초 처리에서 발송하지 않고 이후 별도 절차로 실행

다음 개선: 같은 날짜·상호·금액의 기존 항목을 기록 전에 후보로 보여 주기

START WITH ONE TASK

메신저와 스프레드시트만으로 시작하는 5단계

01 놓치는 일 선택

영수증처럼 반복해서 미루는 한 가지

02 기록 열 정의

날짜·상호·금액·상태처럼 필요한 값

03 말·사진 입력

메신저에서 평소 표현으로 요청

04 기록 후 재확인

저장 행을 대화창에 다시 붙여 원문과 비교

05 사람 승인

모호한 값과 외부 행동은 멈추고 확인

연동이 없으면 저장된 행을 대화창에 다시 붙여 원문과 비교합니다.

예시 지시

“영수증에서 날짜·상호·금액을 한 행으로 정리해 줘. 같은 항목이 있으면 후보만 보여 줘. 모호하면 기록하지 말고 질문하고, 기록 후 같은 행을 다시 읽어 줘.”